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와 미중 무역분쟁*

서 정 경** · 원 동 욱***

❖ 요 약 ❖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시진핑 정부의 강대국 외교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는 ‘강대국으로서의 외교’와 ‘강대국에 대한 외교’가 혼재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이 두 가지 틀에 기반하여 시진핑 시기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中國特色的大國外交)를 분석한다. 공고화된 강대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외교’가 ‘강대국에 대한 외교’보다 강화되었고, 양자 간 구분이 모호하고 서로 중첩되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미국 발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되었음을 밝힌다.

핵심어: 중국, 강대국 외교, 미중 무역분쟁, 강대국으로서의 외교, 강대국에 대한 외교

Ⅰ. 서론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전임자에 비해 강대국 지위에 대한 보다 강한 열망과 노력을 경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oncevert Ganan Almond, 2017; 우신보(吳心伯) 인터뷰, 2017.7.19; 진찬룽(金燦榮), 2017). 시진핑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위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를 천명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에 힘 쏟아왔다.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충돌을 우회하면서도 미국 중심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중국의 비전과 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국제질서규범을 창출하려는 ‘강대국 개혁주의(great reformism)’를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적극 표출해왔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발 무역분쟁은 이러한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억제하고 기존 권력구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선제적인 공세로 평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 발발한 무역분쟁이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시진핑 정부의 강대국 외교는 과거 중국의 강대국 외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미국과의 무역분쟁은 중국의 강대국 외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는 우선 중국의 강대국 외교가 신중국 성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일정하게 진화해왔음에 주목한다. 원래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미국 등 다른 '강대국에 대한 외교'를 일컫는 말로서, 중국이 자신의 약소국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구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입장과 행위를 규정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중국의 강대국 외교가 점차 국력의 신장에 따라 강대국인 자신의 대외행태를 고민하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히 시진핑 시기에 뚜렷이 드러났는데, 중국은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제시하면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외교' 외에도 '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외교' 분야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과거와 차별되는 시진핑 시기의 강대국 외교는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 행정부 발 미중 무역분쟁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되었음을 밝히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다. 아울러 이 글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외교' 분야가 일정기간 수렴 및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의 개념을 밝힌다. 중국에서 강대국을 의미하는 "대국(大國)"이란 말의 개념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는 '강대국에 대한 외교'에서 출발해 점차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를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왔음을 밝힌다. 특히 현재 시진핑 집권기 전개되고 있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中國特色的大國外交)는 전자보다 후자의 의미로 상당히 진화했다가, 미국 발 무역분쟁이 이러한 추세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격화와 자유주의 질서의 미래에 관한 연구들이 그동안 국제정치학 저널을 중심으로 서구 학계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날 미중 무역분쟁에 집중하여

나온 학문적 성과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1] 또한 중국 외교에 대한 연구들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천착하여 전개된 연구들은 한국뿐 아니라 서구학계에서도 흔하지 않다. 반면 중국학계에서는 강대국 외교를 공식 천명한 시진핑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여 특히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관련 연구가 대량 산출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부의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서구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주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관방의 논리와 시각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분석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2] 이러한 연구 외에 최근 서구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화권 학자를 중심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에 대한 일련의 주목할 만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우선 시진핑 시기의 강대국 외교를 시진핑의 리더십과 연결시켜 분석한 연구로서, 후웨이싱(Weixing Hu)은 중국 외교의 혁신적 변화에 무엇보다도 시진핑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시진핑의 독특하고 강한 리더십이 중국 외교의 비전과 미션을 재정의했을 뿐 아니라 중국 외교의 제도적 개혁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3] 린즈민(Zhimin Lin)은 시진핑 리더십의 변화를 조엘 믹덜(Joel Migdal)의 국가-사회관계 이론에 근거해 분석했다. 그는 제도적 혁신, 자원의 동원, 규율의 강화 등을 통해 시진핑이 더욱 강한 외교적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4] 이 외에도 왕지엔웨이(Jianwei Wang)는 시진핑의 리더십에

---

1) 이러한 연구로는 John Owen, "Liberalism and Its Alternatives, Agai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0, No. 2, 2018.; Shahar Hameiri and Lee Jones(2018), "China challenges global governance? Chinese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and the AIIB",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3 등이 있다.

2) 董安 ,"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戰略方程的政治邏輯"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7.11.; 俞邃 ,"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 世界社會主義研究 2018.3.; 李志永, "大國外交的中國特色之論 " 太平洋學報, 2015.2; 楊潔勉, "新時代中國外交的戰略思維和謀劃" 外交評論(外交學院學報), 2018.2; 王棟 , "淺析中國特色大國外交理論及實踐" 國際展望 , 2017.11; 劉建飛, "中國特色大國外交的時代特色"國際問題研究, 2017.3 등 다수가 있다.

3) 그는 조셉 나이의 리더십 분석 틀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전환형 리더(transformational leader)의 자질을 입증하였으며, 중국 외교는 마오저둥, 덩샤오핑을 이어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외교 3.0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Weixing Hu,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The Role of Leadership in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

4) Zhimin Lin,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The Impacts of China's Growing Capacity," *Journal of Comtemporary China*, 2018.

의한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가 기존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의 낮은 자세(low profile)식 '도광양회(韜光養晦)' 외교와 결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5] 이러한 최신 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미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외교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학술적, 현실적 의미를 도출한 연구는 학계나 정책계 모두에서 드물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틀로서 우선 관련 개념을 정립한다. 중국의 강대국 외교의 의미를 다각도로 설명하고, 중국의 강대국 외교가 역사적으로 그 개념을 확장해왔음을 밝힌다. 3장에서는 시진핑 시기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강대국의 외교'와 '강대국 대상 외교'로 나눠 분석함으로써 영향의 실체를 밝힌다. 마지막 5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고 중국의 강대국 외교의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Ⅱ. 분석 틀

1. 중국의 강대국 외교 개념

중국의 강대국 외교 개념을 이해하려면 중국에서 쓰이는 "대국(大國, 중국식 발음 따궈)"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대국"이란 일반적으로 세계를 제패한 패권국 또는 초강대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강대국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것의 사례로는 중국 사회에 크게 유행했던 중국 관영

5) 그는 또한 시진핑의 국가 안보이슈에 대한 현실주의적 집착이 중국의 자유주의적 글로벌 비전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 전망했다. Jianwei Wang,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A Paradigm Shif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

중앙텔레비전(CCTV)의 "대국굴기(大國崛起)"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2006년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방영되어 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프로그램은 과거와 현재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부상했는지의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역사 다큐멘터리이다. 여기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과 오늘날 미국 등 전 세계를 제패한 세계 패권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거나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총 9개 강대국들을 모두 "대국"이라 칭했다. 슈퍼 파워(super power)를 의미하는 초강대국이 중국에서 "초급 대국(超級大國)" 또는 "패권국가(覇權國家)"로 문헌에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모두 "대국"이라는 넓은 개념 안에 포함된다. 이 경우 중국의 "대국" 개념은 영어로는 great power, power state뿐 아니라 major country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중국의 "대국" 개념은 우리말로는 강대국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 경우 "대국외교"는 영어로 great power diplomacy, major power diplomacy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6]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간혹 대국(大國)이 강국(強國)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어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78년 개혁 개방 노선을 취하면서 중국은 스스로를 개도국, 즉 중국어로는 "발전중 국가(發展中國家)"라고 칭해왔다. 이후 국력의 현저한 증대에 힘입어 중국 학계에서 중국이 '개도국 중의 대국' 즉 "발전중 대국(發展中大國)"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자신이 현재 '개도국 중의 대국'에서 '개도국 중의 강국', 즉 "발전 중 강국(發展中強國)"으로 성장하고 있다거나, 또는 '역내 강국' 즉 "지역성 강국(地區性強國)"에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지닌 대국' 즉 "세계성 대국(世界性大國)"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7] 이 경우 "대국"은 "강국"의 전단계로 간주되며 후자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이때의 "대국"은 영어로 major state나 major country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강국"은 global power이나 super power의 의미에 가깝다.

셋째, 강대국을 칭하는 "대국"에 "중국 특색"이라는 용어가 합성된 '중국 특색의 강대국' (有中國特色的大國)이라는 표현이 있다. 시진핑 집권기 처음 출현한 이 개념은

6) "대국외교"를 great power diplomacy로 번역한 중국의 논문으로는 李志永,袁正清, "大國外交的中國特色之論," 『太平洋學報』, 2015년 2기 참조; major power diplomacy로 번역한 중국의 논문으로는 憑維江, "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 『國際展望』, 2018년 3기 참조.

7) 王凡, "中國特色大國外交: 緣起, 成就與發展" 『當代世界』 2017.7, p.10.

오늘날 중국의 강대국 외교를 대변하는 용어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경우 “대국”에 서구의 역사와 이론, 실천과는 구별되는 중국만의 특색을 지닌 강대국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투영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역사와 경험, 가치관에 따라 자신만의 발전의 길을 가는 법인데 중국이 가는 길은 동양의 전통 가치와 중국 공산당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길로서 이는 서구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패권주의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등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8] 이처럼 과거 세력경쟁과 무력충돌, 갈등과 전쟁의 역사를 담은 서구의 강대국화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관방의 의도를 반영하여 중국 학자들은 ‘중국 특색의 강대국’에서의 “대국”을 패권국을 뜻하는 global power나 power state로 번역하기 보다는 major country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9]

2.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 개념의 역사성과 확장성

1) 강대국에 대한 외교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시기별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행동하며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 것이었다. 양대 진영론적 세계관 속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리더인 소련을 대상으로 “일변도(一邊倒)” 정책을 전개했고, 자유주의 진영의 리더인 미국에 대해서는 반(反)제국주의를 주창하며 저항했다. 이후 삼개 세계론적 세계관 시기에는 미국을 패권주의로, 소련을 수정주의로 규정하며 양 강대국에 동시 저항했다.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광범위한 제3세계를 끌어안으며 강대국들에 대항하는 통일전선을 전개한 것이다. 이것이 당시 중국의 강대국 외교였다.

이후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주로 서구 선진

---

8) 王範, 2017, p.13.

9) 이러한 예로는 Jianwei Wang,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A Paradigm Shif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 Zhimin Lin,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The Impact of China’s Growing Capacit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 Weixing Hu,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The Role of Leadership in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

국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본과 기술, 노하우를 획득하는데 치중했다. 선진국보다 약세인 개도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강대국들에게 개방하면서도 그들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독립자주 5항원칙'이 제시되었다. 이 시기까지의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대체로 자국의 상대적 열세와 국력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국보다 강한 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관한 것이었다.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 접어들며 중국의 외교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중국의 외교는 강대국, 주변국, 개도국, 그리고 다자관계라는 네 가지 층위로 나뉘어 각각 우선순위와 특징에 맞게 규정되었다. 즉 강대국과의 관계는 "자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적인 것(大國是關鍵)"이라 보았고, 주변국과의 관계는 "자국 외교에서 우선순위(周邊是首要)"라고 생각했다. 개도국과의 관계는 "자국 외교의 기반(發展中國家是基礎)"이라 보았고, 다자관계는 "자국 외교를 펼치는데 있어 중요한 무대(多邊是重要舞台)"라고 설정했다.[10] 이러한 4개 층위의 중국 외교는 이후 시진핑 집권기에 공공외교가 추가되면서 총 다섯 개의 층위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외교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다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과정에서도 강대국 외교는 줄곧 가장 먼저 거론되었으며, 중국 외교 전체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 취임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새로운 강대국관계(新型大國關系)'는 18차 당대회에서 그 적용 대상이 미국, 러시아, 인도, 유럽, 일본으로 확대되었다. 시진핑 집권기에 강대국에 대한 외교가 과거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변화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강대국 외교(大國外交)는 다른 강대국을 대상으로, 중국이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입장과 행위를 의미한다.

2) 강대국으로서의 외교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국력 증대와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강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뿐 아니라, 강대국인 중국 자신이 국제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하는지, 즉 "강대국으로서의 외교"에 대한 전략적 고민도 새롭게 담기 시작했다. 그 첫

10) "'和諧世界'理念助推中國外交取得卓越成就," 新聞中心-中國網, 2012년 8월 29일. http://news.china.com.cn/txt/2012-08/29/content_26362796.htm (검색일: 2018.1.1.)

계기는 1990년대 중후반 발발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이다. 중국은 금융위기에 빠진 주변의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음으로써 주변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주변국의 찬사와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가 당시 자국의 안보환경을 위협하던 미국과 서구의 '중국위협론' 대처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를 "책임 지는 강대국(負責任的大國)"라고 칭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공헌을 논하기 시작했다. 강대국으로서 자신이 주목해야 할 지리적 범주를 우선 동아시아로 상정하고 역내 책임지는 강대국 모습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출간된 많은 중국 문헌들은 강대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논의들을 담고 있으며,[11] 이는 또한 서구 학자들의 연구를 촉발시켰다.[12] 또한 이 시기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제시된 중국의 "화평굴기", "화평발전" 등 개념들도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자신을 국제사회에 이해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는 당시 중국을 옥죄던 '중국 위협론'에 피동적으로 대응하여 생성된 것이었고, 내부적으로 모색하는 단계였다. 또한 이 시기 중국의 정체성이 완전히 강대국으로 변환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개도국 정체성이 강했던 시기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비해 후진타오 시기인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강대국 외교, 특히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는 다소 능동적인 성격이기 시작했다. 공정한 국제질서 추구, 기존 시스템 보완이라는 명분 아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한계와 빈틈을 공략하고 이를 재편하려는 적극적인 인식과 움직임을 점차 선보이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간주하는 강대국 정체성 또한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國夢, 중국몽)," "두개의 백년(兩個一百年),"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 등 약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안착한다는 분명한 비전

11) 孔令銅, "負責任的大國風範," 中國國防報 2000.10.; 丁寶忠, "中國是個負責任的大國," 新華每日電訊, 2001.3; 屈從文, "負責任的大國觀," 『世界經濟與政治』, 2002.10 등 다수가 있다.

12) Bonnie S. Glasser and Evan S. Medeiros, "The Changing Ecology of Foreign Policy Making in China: Then Ascension and Demise of the Theory of 'Peaceful Rise,'" China Quarterly, Vol. 190 (June 2007), pp. 291-310.

및 관련 정책 제시와 함께 뚜렷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국력의 증대에 더해 국제질서의 중요한 정세변환기를 맞이하여 자국의 강대국 외교를 변화시켜왔다. 스스로를 강대국으로 여기는 강대국 정체성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강대국으로서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하고 타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점차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후진타오 시기 "소프트파워", "핵심이익", "해양대국" 등 강대국화에 관한 새로운 담론이 모색되기 시작했다면 시진핑 시기 들어 강대국으로서의 외교가 본격적으로 이행 및 표출되면서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강대국 외교가 전개되었다.

3. 본 연구의 연구 틀

본 연구는 상술한 다양한 중국의 "대국" 개념 가운데, 강대국을 "대국"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일반적인 입장을 취한다. 즉 "대국"은 강대국으로, "대국외교"는 강대국 외교로 번역한다. 그러므로 시진핑 시기의 "중국 특색 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로 번역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본 연구는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사실상 '강대국으로서의 외교'와 '강대국에 대한 외교', 이 두 내용이 분명한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 관방뿐 아니라 학계는 두 개념 차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대국" 즉 강대국이라는 한 가지 용어로 양자를 아우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외교에서 "강대국 관계는 관건이다(大國是關鍵)"의 강대국은 다른 강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즉 객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에서의 강대국은 주로 강대국으로서, 즉 주체로서 중국이 해야 할 외교라는 의미를 상당히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강대국 외교를 '강대국에 대한 외교'와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런데 두 가지 개념을 엄밀히 분류하면,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는 크게 강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외교와, 강대국으로서 다른 비강대국에 대한 외교로 나뉠 수 있다. 또한 '강대국에 대한 외교'는 크게 강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외교, 그리고 비강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외교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 중국 역사상 강대국 외교

강대국으로서의 외교	강대국에 대한 외교
- 강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외교 - 강대국으로서 강대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	- 강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외교 - 비강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외교

이러한 틀에 따른다면 강대국 정체성이 고착된 시진핑 시기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자신의 특색을 담아 다른 강대국에 대해 행하는 외교, 그리고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자신의 특색을 담아 강대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 행하는 외교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틀 속에서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에 미중 무역분쟁이 어떠한 의미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한다.

Ⅲ. 시진핑 시기 중국의 강대국 외교

1.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배경

시진핑 주석은 취임과 동시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국가의 비전으로 공식 채택하고 그 실현을 위한 두 개의 백년을 제시했다.[13] 또한 취임한 지 약 100일째 되는 시기에 개최된 평화포럼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정식 제시하였다.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두 개의 백년 로드맵이 전개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신의 특색이 가미된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임을 국내외에 공식 천명했다. 이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안착하겠다는 목표 속에서 미국 등 다른 강대국에 대한 자국의 외교를 가다듬고, 아울러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대외적 입장 및 정책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13)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2일까지 언급한 '중국의 꿈'에 관하여 人民日報, 求是 등 간행물에 실은 글, 서신 등 주요 문헌들을 엮어 만든 『摘編』의 내용을 보려면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偉大複興的中國夢論述," 共産黨新聞網, 2013년 12월 5일자 참조. http://theory.people.com.cn/n/2013/1205/c40555-23756883.html (검색일: 2014년 1월 5일).

의지의 표현이었다.

시진핑 시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지향하는 강대국 외교가 본격 전개된 동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다. 우선 첫째, 국내정치의 필요성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과거와 구별되는 뚜렷한 변화 한 가지는 바로 개혁개방 이후 줄곧 중국 사회 전반에서 가장 상위의 목표에 놓여 있던 '경제 성장'이라는 구호가 사라지고 '중국의 꿈'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 시기를 맞이하여 과거 두 자릿수에 달하는 '경제 성장' 신화로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고속성장을 할 수 없는 중속성장 시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집권 명분을 찾아야 하는 절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민족주의적 열망 및 개인적 욕구가 가득 찬 대중들을 맞이하며 탄생했다. 오랜 고도성장 기간 동안 억눌렸던 중국 사회의 총체적 욕구와 갈등을 더 이상 '경제 성장'과 부의 축적이라는 명분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뉴노멀(新常態)' 시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꿈'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고 계속 억제 및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사회 및 학계에서는 미국 및 서구 중심적 국제 세력 구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형성되어왔다. 예를 들어 팡중잉(龐中英)은 "비록 서구 패권시대가 아직 종결된 건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만일 서방이 자신의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다면 서구 패권이 빠르게 종결될 것임을 예측하는 몇몇 추세가 있다"[14]고 주장함으로써 서구사회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피력했다. 짜오커진(趙可金)은 21세기 초 가장 큰 국제정치의 변화는 중국의 지속적 부상이라 지적하며 "중국이 이미 국제사회의 주변적 위치로부터 벗어나 지금은 글로벌 경제, 정치, 안보영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15] 옌쉐통(閻學通)은 "2023년이 되면 세계에는 두 개의 슈퍼파워가 있을 것이며 중국이 그 중 하나"라고 전망하면서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외교를 폐기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16] 옌쉐통처럼 과감한 전망은 아닐지라도 상당수 중국 학자들은 서구 중심적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있으며 동요되고 있다는 관점을 피력해왔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역사적 흐름과 추세가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중국학계의

14) 龐中英 , "全球治理的'新型'最爲重要:新的全球治理如何可能," 『國際安全研究』 2013年 第1期, p.53.
15) 趙可金 , "中國地位與世界角色:探索新外交哲學," 『國際政治研究』 2012年 第4期, p. 50.
16) 閻學通 ,『曆史的關性: 未來十年的中國與世界』 中信出版社, 2013, p.18.

주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국제정치적 야망과 함께 자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세력구도의 변화 및 자국의 위상 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중국 사회 전반에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정치보고는 "국제 세력구도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종합실력이 증가되어 국제세력의 균형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공식 진단했다. 변화된 국제 세력구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강대국 외교가 대두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셋째, 시진핑의 개인적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혁명 원로 1세대의 자녀이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그런 시 주석이 자신의 임기 내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건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이며,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다. 2020년은 두 개의 백년 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전면적 소강(小康)사회 건설이 완성되는 해이며, 이듬해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해당한다. 이처럼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를 자신의 임기 내에 맞이하게 된 시 주석은 이를 성공시키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총체적 성과를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정치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개인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주요 내용과 실천

1) 강대국으로서의 외교

시진핑 시기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에는 '강대국에 대한 외교'도 중요하게 취급되지만 특히 '강대국으로서의 외교'가 비중 있게 자리한다. 후자는 현재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가지는 전략과 행위는 물론이고, 2050년까지 최강대국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자신의 전략과 행위를 함께 담고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 특색 강대국외교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외교'의 주요 특징은 중국 외교의 시야가 과거보다 더욱 국제화되고 넓어져서 국제사회 전체를 아우르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크게 담론과 행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담론 강화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시 주석은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담론력(話語權, discourse power)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력 증대에 효과적인 소프트 파워 및 담론력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이전 정부부터 시작되었지만, 시진핑 집권기 들어 강대국으로서 담론력 강화를 위한 당국의 움직임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공공외교의 대두에서 드러난다.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는 공공외교가 강대국화 추진과정에서 "기존 외교의 부족함을 보완해줄 수 있다(公共外交是補充)"는 의미와 함께 중국의 중요한 외교의 일환으로 격상되었다. 이로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는 기존의 강대국 외교, 주변국 외교, 개도국 외교, 다자외교에 더해 공공외교가 추가된 5가지 층위로 재정립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18차 중공중앙 정치국 제12차 집단학습시 중국이 갖춰야 할 '네 가지 강대국 이미지'를 제시했다. 이는 "문명 강대국 이미지(文明大國形象)," "동방 강대국 이미지(東方大國形象)," "책임지는 강대국 이미지(負責任大國形象)," 그리고 "사회주의 강대국 이미지(社會主義大國形象)"이다. "문명 강대국"은 중국의 깊고 풍부한 문화, 민족의 다원일체, 다양하며 조화로운 문화를 주로 강조한 개념이다. "동방 강대국"은 중국의 청명한 정치, 발전된 경제, 번영하는 문화, 안정된 사회, 단결된 인민, 아름다운 산하를 강조한 개념이다. "책임지는 강대국"이란 중국이 평화발전을 견지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인류를 위해 공헌함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강대국"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더욱 개방하고, 더욱 친화력을 갖추며, 희망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17] 이처럼 시진핑 집권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책임지는 강대국 이미지"에 더해 서구와 구별되는 동양의 핵심가치가 접목되고 보강되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중국의 이미지 제작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대폭 경주되었다.

중국 학계도 중국적 가치와 규범의 우월성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담론 개발에 몰두하였다. 중국 칭화대학의 옌쉐퉁은 중국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글로벌화 시대의 특수성까지 결합시킨다면 중국이 새로운 보편적 가치관을 창조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18] 중국식 국제질서가 국제사회에서 한계를 드러낸 미국식 국제질서를 대체하여 보편적 국제질서가 될 수 있다는 중국 내 과감한 담론 및 주장이 활발하게 대두하면서 중국 사회

17) "把握國際話語權, 有效傳播中國聲音-習近平外宣工作思路理念探析," 2016.4.6.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4/06/c_1118542256.htm (검색일: 2018. 8. 24)

18) 그는 중국 고대 사상 가운데 인(仁), 의(義), 예(禮)가 현대의 공평, 도의(정의), 교양(문명)과 유사한데, 정치윤리의 관점에서 공평, 정의, 교양은 각각 서구의 평등, 민주, 자유보다 한 단계 높은 가치라고 주장하였다. 閻學通 ,『曆史的關性: 未來十年的中國與世界』 中信出版社, 2013.

전반에 공유되었다.

시 주석은 당의 19차 중공중앙 제3차 전체회의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 관련 좌담회 석상에서 국제 담론력 및 대외 담론 시스템 건설을 강화하자고 거듭 강조해왔다. 담론 시스템을 건설해야 하고, 중국과 해외에 통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하고, 중국의 스토리를 잘 얘기해야 하고, 중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하며, 국제무대에서의 담론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9] 이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중국의 소장학자 장웨이웨이(張維爲)도 "중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독자 및 청취자들이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중국의 길, 중국 제도, 중국 이념, 중국 문화를 더욱 잘 전파하는 것이며, 이로써 중국의 관점이 세계의 어휘가 되고 전 세계의 공감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저술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20]

담론 강화는 다양한 부문에서 발현되었다. 우선 시 주석의 브랜드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일대일로'에 관하여 다양한 담론이 생성되었다.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규정하며 이것을 전파하는데 주력했다.[21] 또한 자국과 주변국은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라는 새로운 관계유형으로 제안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5년 후 2기 출범시 시정부는 그동안 주변국과의 관계에만 주로 적용했던 "운명 공동체" 담론을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人類運命共同體)"라는 더욱 확대된 개념으로 제시했다. 이는 시진핑 2기 정부 출범시 중국의 강대국 외교가 1기에 비해 더욱 국제사회에 대한 과감하면서도 다소 이상적인 접근을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중국 방안(中國方案)", "중국 공헌(中國貢獻)"이라는 더욱 담대하면서도 과감한 담론들도 생성되었다. 이는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서구세계의 리더십 약화, 전 세계적인 반세계화 사조와 저성장 시기

---

19) "構建中國特色話語體系, 增強國際影響力話語權" 中國共産黨新聞網, 2015.11.14. 이후 2016년 2월 19일 개최된 당의 언론여론업무좌담회에서도 시주석은 언론 전파 규율을 준수할 것, 방법과 수단을 새롭게 혁신할 것, 대외 전달 담론 시스템 건설할 것, 국제 담론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 전달 담론 시스템의 임무, 방법, 책략, 수단 그리고 책임주체를 명확히 했다.

20) 張維爲, 『中國超越』, 上海人民出版社, 2014, p. 105.

21) 친(親)은 주변국과 더욱 가깝게 지낸다는 것, 성(誠)은 성실과 성의를 다해 주변을 대한다는 것, 혜(惠)는 중국 발전과 함께 기회와 그 혜택을 나누자는 것, 그리고 용(容)은 중국이 주변국을 더욱 포용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를 맞아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자신의 긍정적 역할과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감히 제창한 것이다. 서구사회의 약화, 각국의 양극화 및 민족주의 정서 심화 등 상당히 불안정하고 복잡한 국제정세가 전개된다는 전략적 판단아래 시진핑 정부의 강대국 정체성은 더욱 고착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강대국 담론이 적극 표출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집권기에는 미국적 가치, 규범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강화

2014년 외사공작회의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 상 '주변국과 운명공동체 구축'이 가장 앞자리였다. 그런데 2018년 동 회의에서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이 1순위에 올랐다. 이는 국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려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외교가 더욱 과감해졌음을 의미한다. 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역량과 범주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4년엔 5위에 그쳤던 일대일로가 2018년엔 두 번째 순서로 올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단순히 국내경제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만 보고 있지 않으며, 보다 넓게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조정, 기존의 미국과 서구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 그리고 국제사회에 비친 중국 이미지 제고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일대일로를 19차 당 대회에서 중국 당장에 삽입함으로써 향후 일대일로를 통한 강대국 지위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나타냈다.

〈표 1〉 2014년과 2018년 외사공작회의 정책우선순위 비교

	2014	2018
1	주변국과 '운명공동체' 건설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정 발전
2	안정적인 대국관계 틀 구축	일대일로 건설, 대외개방 새로운 단계
3	개도국 단결협력 강화	안정적인 대국관계 틀 구축
4	다자외교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더욱 우호적인 주변 외교 추진
5	일대일로 건설, 공영협력 촉진	개도국 단결 협력 심화, 개도국은 천연 동맹국
6	정확한 도의와 이익관 갖는 대외원조	정확한 도의와 이익관 견지해 개도국 협력 강화
7	중국의 해외이익 보호력 강화	세계와 깊은 교류 통한 상호 학습

2) 강대국에 대한 외교: 핵심 이익 강조, 그러나 관계 안정에 방점

시진핑 정부는 취임 초기 민족주의 세력의 득세 속에서 '핵심이익'을 강조했다.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는 단호하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출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진핑 정부는 미중관계 역사상 최초로 중국이 미국에게 자신의 요구 사항인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능동성을 발휘했다.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관계"의 핵심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데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의미가 크다. 그동안 주로 미국의 반응에 수세적, 피동적으로 반응했던 중국의 전략적 변환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시진핑 정부 시기 들어 처음으로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입장과 바람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공세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민족주의 세력과 국제주의 세력 간 논쟁이 이뤄지고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중국이 강대국과의 갈등과 충돌을 우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되었다. 시진핑은 2013년 11월 서방 언론과의 회견에서 중국과 기타 국가들은 서로 노력하여 '투키디데스 함정'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22] 2015년 9월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미중관계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과의 안정된 관계 유지에 대한 바람을 투영했다.

이후 시진핑 2기 정부는 집권 1기 대외정책에 대한 검토와 회고를 거쳐 일정한 전술적 수정을 가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강대국으로서의 외교'에는 더욱 주력하면서 '강대국에 대한 외교'에는 다소 힘을 빼면서 관계 안정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강대국 특히 미국과 직접 맞닿는 갈등부분의 공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서 드러났다. 첫째, 과거 18차 당 대회 정치보고시 서두에 나타났던 강대국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 언급[23]이 오년 후인 19차 당대회에선 사라졌다. 타자에 대한 비난과 불평보다 자국의 할 일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

22) Nicolas Berggruen and Nathan Gardels, "How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 Thinks," *Huppington Post*, January 21, 2014. https://www.huffingtonpost.com/2014/01/21/xi-jinping-davos_n_4639929.html (검색일: 2018. 7. 12)

23)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정치보고시 보고서 전반부에 전 세계 금융위기, 강대국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 국제적인 혼란 그리고 지구적인 비전통 안보문제가 적시되었다.

둘째,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라 요구했던 '신형 대국관계' 담론이 미국 등 강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킨다는 판단 하에 신형 대국관계 담론을 수면 아래로 내렸다.[24] 대신 "신형 국제관계"라는 더욱 확대된 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강대국과의 갈등 공간을 없애면서도 동시에 서구와는 차별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 전반 즉 강대국과의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개도국과의 관계, 다자관계, 그리고 공공외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들을 더욱 자극시킬 만한 것이었다. 셋째, 2018년 3월 8일 양회기간 중 개최된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언론 브리핑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미중 무역분쟁 가능성에 관하여 중미 간에는 협력이 주(主)라고 일축하였다. 미국인들의 대중 호감도가 계속 상승한다는 최근 갤럽 여론조사[25]를 인용하면서 미국과 충돌하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가급적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26]

이는 중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국력을 확보하고 강대국 지위를 가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 이르러 강대국과의 세력경쟁이나 갈등에 결코 휘말리지 않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이 2018년 4월 펜실베니아 대학 강연에서 미중 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27] 이처럼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안정에 방점을 두고 강대국 외교를 전개했다. 이처럼 관계 안정을 추구하는 입장은 강대국 외교의 대상이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유럽, 인도 등 다른 강대국로 확대되면서 모든 강대국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

24) 중국내 대표적 미국 전문가인 왕지스 교수는 "중국의 싱크탱크와 정부는 계속 신형 대국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중국이 원하는) 많은 답을 얻어내지 못할 거라고 느끼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필자와의 단독 인터뷰. 2017.8.7.

25) "Favorable Views of Japan, China keep climbing," GALLUP, march 6, 2018.

26) 이 외에도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 영향력의 경계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 "누군가의 치즈를 건드릴 생각은 없다", "중·중남미 관계 발전은 양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27) "푸잉 中전인대 부주임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 빠져선 안돼," 연합뉴스, 2018년 4월 15일.

Ⅳ.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

1. 타격 받은 ‘강대국으로서의 외교’: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약탈국가’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온 중국에게 트럼프 행정부발 무역분쟁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미 간 경제무역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중국사회의 일반적 정서 및 기대와 사뭇 괴리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앞서 밝혔듯, 중국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의 수호자 이미지를 강조해왔으며 또한 그렇게 인정받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2018년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여 자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공헌도를 적극 전파할 계획이었다. 사실상 트럼프 집권 이후의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고립주의 국가로, 글로벌 리더십 보다는 자국 이미지에 집착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기에 중국이 보기에 이 기회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외교를 전개하는 가운데 미국의 부당함과 자국의 정당함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였다.

따라서 무역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미국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담론과 주장을 펼쳤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의 다자주의에, 미국의 보호주의가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해 도발한 것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관세부과 방침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행태를 보였으며, WTO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의 다수 언론들도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캐나다, EU,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 관세 부과를 선포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전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을 ‘자유주의 무역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국제적 규범인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함으로써 그에 대한 전 세계적 대항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다.[28] 특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

28) “外媒評中美貿易戰：川普不止對准中國還掃射了全世界.” . http://mil.news.sina.com.cn/dgby/2018-06-19/doc-iheauxvz4791600.shtml (검색일: 2018.8.19.)

다수의 나라가 미국과 군사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미국이 아닌 자신의 편에 서길 희망했다. 그리하여 미국을 고립시키고 자유주의 무역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미국에 의해 촉발된 무역 분쟁은 자유주의 무역질서의 지속 가능성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무역 분쟁이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에 적극 참여하며 미국의 패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유럽연합, 일본, 한국, 호주 같은 전통적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한 저항이 거세졌다는 점이다. 이것을 간파한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보복 정책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지식재산권 약탈국가'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와 연대 형성을 추구했다. 미국은 자신 및 서구의 첨단 기술이 중국의 차이나머니를 기반으로 한 인수합병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현상도 경계하였으며, 엑세라, 퀄컴 등 자국의 반도체 회사가 중국 자본에 넘어갈 뻔한 상황을 막은 적도 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금지했는데, 미국뿐 아니라 호주와 일본도 화웨이와 ZTE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미국과 같은 입장임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국 전선에 함께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 상무부 차관인 브루스 앤드루스는 미 경제매체 CNBC에 "중국이 세계의 불만과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미국이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의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9]

이에 반해 중국은 EU, 일본 등과 반미 연대를 추진해왔지만 사실상 이에 관한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EU, 일본 대표단이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운용 등에 대해 WTO에 공동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은 트럼프와 함께 WTO에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이전 규정을 제소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 경영진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캐나다에서 전격 체포된 사실은 중국인들에게 서구사회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반중진영이 여전히 매우 강하고 공고하다는 충격으로 다가갔다.

---

29) "미중 무역전쟁 5개월, 싸움의 균형이 무너졌다," 머니투데이(2018.8.27)에서 인용.

이러한 상황은 중국 특색의 강대국외교의 기조 하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와 리더십 제고에 주력해온 중국에게 큰 외교적 좌절에 다름 아니다. 앞서 밝혔듯, 시 정부는 “일대일로”, “친·선·혜·용”, “인류운명공동체”, “중국방안(China Solution)” 등의 담론을 쏟아내고 공공외교를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작업에 상당히 주력해왔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를 맞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중국이 국제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수하려는 의로운 강대국임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과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중국은 도리어 ‘지식재산권 약탈국가’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수여받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사회 특히 서구사회 반중진영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날카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2. 실패한 ‘강대국에 대한 외교’: 전략적 오판(wishful thinking)

무역 분쟁 과정에서 시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겠다”는 당당한 입장을 표출해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줄곧 중미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강대국과의 갈등을 가능한 우회하려는 중국의 강대국 외교의 일환이었다. 지금까지의 무역분쟁 과정을 살펴보면 미중 간 주도권은 미국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관에 따라 분쟁 영역을 확대시키거나 딜을 전개해왔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2018년 3월 15일 중국 외교부는 “중미간 경제무역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 윈윈의 성격을 갖고 있다(中美經貿關系本質上是互利共贏的)”는 발표를 통해 과거 40년 동안 중미 경제무역투자협력은 양국 국민과 경제계에 거대한 이익을 가져왔으며, 과거에 발발한 경제무역 마찰은 모두 건설적 방식을 통해 원만해 해결되어 왔다고 강조하였다(人民網, 2018.3.15.). 일주일 후 중국 CCTV는 “무역전쟁은 중미 간 무역 마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역불균형의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협력의 케익을 만드는 것이지 결코 무역전쟁이나 강제로 사고파는 것은 아니다”는 중국외교부의 입장을 거듭 전했다. 미국의 보복조치

에 맞서 중국도 4월 1일 대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후에도 중국 외교부는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 가한 232개 조치에 대한 대응이며 슈퍼 301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밝히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대응전의 범위를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확전을 원치 않는 중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30] 하지만 이후 미중 무역분쟁은 줄곧 확대되었고, 적잖은 진통을 겪어왔으며, 결국 해를 넘겨 2019년에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강대국 외교 특히 '강대국에 대한 외교'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강대국에 대한 중국 외교의 핵심은 결국 대미관계였다. 중국은 2050년까지 글로벌 최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충돌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미국 발 무역분쟁과 압박에 당면했다. 충돌과정에서도 시진핑 정부는 끊임없이 중미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확전을 경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무관하게 자신의 뜻대로 중국과의 분쟁을 계속 확전시켜왔고 중국은 끌려가는 상황에 처해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번 일이 더욱 뼈아픈 것은 1989년 수교 이후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중국이 견지해왔던 대미관계의 공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강대국화의 과정에서 가장 미국을 주목해온 중국 입장에서 되새겨볼만한 대목이다. 중국은 국가 안보, 정치 분야에선 미국과 일정한 긴장과 일시적 불안정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무역관계는 양국관계의 안정을 지켜주고 관계 악화를 회복시켜주는 든든한 돛의 역할을 한다고 오랫동안 여겨왔다. 무역분쟁 발발 이후 베이징대학 장샤오밍(張小明) 교수는 "중국사회는 오랫동안 중미 간 경제무역 관계는 정치 안보 분야와 달리 양국관계의 악화를 막아주는 일종의 안정제의 기능을 해왔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시기 중미무역전쟁으로 인해 그런 관념이 깨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장샤오밍, 2018).

---

30) 中國外交部, 2018.3.3. 미중 무역분쟁이 1, 2차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전되는 상황에 이르러서도 중국 관방의 입장은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지해왔다. 2018년 7월 25-2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8회 중미 민간대화 제2차 회의(칭화대 사회과학학원 중미관계연구센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중미인문교류기지,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 공동 개최)에서 주미대사 추이티엔카이(崔天凱)는 "중미는 여전히 같은 배를 타고 있다(中美仍同在一條船上)"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중미관계에 대해 일부 언론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재균형 정책'이 이미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충돌은 피해질 수 있다고 여긴 중국의 대미 정책이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내 대표적 미국 전문가 왕지스(王輯思)는 미국이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희망적 사고를 전파했고, 다수의 중국학자들도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 중미관계의 불투명성이 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무역분야에서 발생한 미국과의 일전은 강대국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고 여긴 강대국 외교의 희망적 사고가 패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1]

이에 따라 중국 사회 전반에 자성이 일어났다. 무역 분쟁 초기 중국학계에선 이번 사태의 원인을 트럼프라는 독특한 리더의 개인적 특징에서 찾으려는 시각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중 세력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양국관계의 질적 변화에서 찾으려는 관점이 늘어났다. 미국이 중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본격적으로 규정했고, 미중관계는 이제 과거와 차별되는 중요한 전략적 조정기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인 위안펑(袁鵬)은 "과거의 경험과 규칙이 지금에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중미관계가 과거 30여 년과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거나 혹은 일부 질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32] 리뤄구(李若穀)도 중미관계는 과거 40 여 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경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 근거로 첫째, 미국의 지중파, 친중파들이 많이 변했으며, 둘째,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아니면 화이트컬러건 블루컬러건 간에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들었다.[33] 또한 미중 간 현격한 국력 차를 새삼 인식하고 양국 세력대비와 관련된 과거의 야심찬 전망들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34]

---

31) 중국의 미중관계 최고 권위자인 왕지스 교수는 최근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강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하고, 국제 안보영역 특히 아태지역 안보문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경제무역과 글로벌 거버넌스, 인문교류 분야의 중미 간 협력은 심화되는 이른 바 뉴노멀(新常態) 상태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왕지스, 2017). 하지만 그의 이러한 관점은 최근 중미 무역분쟁이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요구받고 있다.

32) 袁鵬, "中美關系已發生根本性變化, 雙方正在三條戰線上同時博弈," 『21世紀經濟報道』, 2018-05-02.

33) 李若穀, "中美關系已經發生根本變化," 『財經』, 2018-06-22.

34) 옌쉐퉁(閻學通) 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종합국력 증가 속도가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고, 향후 십년동안 국력 증가 속도가 계속 하락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아울러 중국이 그간 미국의 힘을 잘못 판단하고 자만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과기일보(科技日報) 류야둥(劉亞東) 편집장은 2018년 6월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을 곧 따라잡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무역분쟁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질타해, 중국 SNS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35) 미국 시장 및 미국 제조업, 핵심기술, 미국 농산품, 달러 시스템 등에 대한 중국의 심한 의존도 및 취약성을 지적한 지린대 리샤오(李曉) 경제학원 원장이 한 졸업식에서의 연설 또한 중국사회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중관계 전문가 선딩리(沈丁立)는 "현재 중미 간 핵심문제가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 둘째, 중미 간 경제무역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중국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현재 미국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진단했다.36)

중요한 것은 무역분쟁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관계가 질적 변화기에 진입했으며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그간 강대국에 대한 외교와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를 구분해 대처해왔고, 무엇보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취하던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V. 결론: 모호한 중국의 강대국 외교의 미래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변했다. 예전보다 공고화된 강대국 정체성을 기반으로 과거 비교적 수동적이었던 '강대국으로서의 외교'가 시진핑 집권기에 훨씬 적극적이면서도 과감해졌다. '강대국에 대한 외교'와 '강대국으로서의 외교' 간 구분이 모호하고 서로 중첩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국제사회가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를 근간에 둔 것이었다.

10년 이내 중국이 미국과 같은 레벨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3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2455.html; 이 외에도 중국내 자성적 목소리로는 孫立平, "不解決這四大'寄生獸', 中國經濟恢複不了活力," 資本軍師聯盟. 2018.8.26.; 馬雲根, "中國的經濟危機爲何難解," http://toutiao.manqian.cn/wz_8T7IbJ4vvH.html (검색일: 2018.10.6.) 등 참조.

36) 沈丁立, "中美關系進入重大調整期," 海外網, 2018-05-10. http://xinwen.eastday.com/a/180510143225417-2.html (검색일: 2018. 10. 12)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무역을 둘러싼 분쟁 및 이로 인해 맞이하게 된 국제적 상황은 그동안 질주해온 시진핑 정부의 강대국 외교에 적잖은 영향과 전략적 사고의 기회를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이 그간 시 정부가 의욕 있게 추진한 '강대국으로서의 외교'와 '강대국에 대한 외교'에 대하여 상당히 유의미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향후 중국의 강대국 외교 특히 '강대국으로서의 외교'는 시진핑 2기 초기에 비해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미국 등 서구사회를 자극시킬만한 행위나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향후 중국의 강대국 외교는 전략적으로 다소 수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발 무역분쟁을 겪으며 중국이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중심적 정치경제 세력구도를 인위적으로 동요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당국은 우선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공개적 언급이나 대외 및 대내 선전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를 국제가 아닌 국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의미를 축소시켜 전개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서구의 제조업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는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힘을 키우려는 전략적 사고와 내부적 준비에 더욱 주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번 무역분쟁이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일각의 진단도 나온 만큼, 이 문제를 향후 중국이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지 강대국 외교 정책과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 어떻게 연동되어 나아갈 것인지를 지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무역질서 속에서 계속 생존 및 성장하기 위하여 자유주의 무역질서 및 규범에 국내사회를 더욱 적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금융 시장 개방, 관세 인하,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적 연구도 필요하다.

서구와 주변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시정부는 주변외교에 더욱 공을 들일 전망이다. 시 정부는 집기 초기 이미 주변외교의 위상을 강대국 외교 수준으로 크게 격상시킨 바 있다. 이는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강대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었다. 시진핑 집권 2기 초기 들어 일대일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나타냈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함께 서구의 강한 경계심뿐 아니라 일부 연선국의 불만을 확인하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향은 주변국을 자신의 우군이자 정치적 파트너로 양성하려

는 것이지만, 이는 향후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가 강대국 외교의 핵심 중 하나이자 시진핑 브랜드라는 점에서 향후 분명 지속될 것이지만, 전개과정에서 국제사회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미래 성장 잠재력을 지닌 아시아 지역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쏟아 부을 것이며 연선국의 입장을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작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보았듯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구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더 나아가 안보적 접근이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과거 마오쩌둥 시절 세계의 빈곤국과 약소국을 규합하여 강대국을 포위하고 그들에 대항하려 했던 중국 외교의 전통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서구가 아닌 제3세계 등 주변 개도국을 우군으로 만들려는 목표와 의도는 향후 더욱 강해졌으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구사회를 자극하거나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두고 중국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많은 시간을 들여 관찰할 필요가 있겠으나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과 덜 의존적이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장 및 경제 세력권을 형성해 나아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중국의 관방학자인 정용녠(鄭永年)의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그는 "무역전쟁과 국제질서의 미래(貿易戰與國際秩序的未來)"라는 글에서 중미 양국이 오랜 무역전쟁으로 인해 상호 의존도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완전히 분리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향후 미래에는 중국이 중국 중심적 시장체제를,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의 기존의 지정학적 경제권역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했다. 그 경우 미국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들과 중국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들, 이 외에도 중미 양자와 동시에 경제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많은 국가들도 있을 수 있다며 미국의 압력 속에서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37]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로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 외에도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던 '강대국에 대한 외교'

37) 정용녠(鄭永年)은 중미 양국이 오랜 무역전쟁으로 인해 상호 의존도가 감소될지라도 양자가 완전히 분리될 가능성은 적다면서, 미래에는 중국 중심적 시장체제와 미국 중심적 기존의 지정학적 경제권이 각각 형성될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를 위해 중국이 계속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鄭永年, "貿易戰與國際秩序的未來," 聯合早報, 2018.8.21.

부문에서 중국은 향후 보다 섬세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 대미정책을 포함한 자신의 강대국 외교를 재검토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규모 구매사절단 파견, 미국 제품 수입 확대, 증권·금융시장 개방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일부 순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 관료가 미국 대기업 인사와 접촉해 "불보복"의사를 전하는 등 타협을 도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신중하면서도 저자세 조치는 무역 분쟁의 부작용이 심화될 경우 시진핑 정부가 대내적으로 경제발전 계획의 차질, 대외적으로 국가위상 저하라는 이중고에 부딪혀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잃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시정부는 향후 대미외교에서 더욱 수세적이면서 신중하게 대처하되, 미국 국내정치의 변화 및 정권 교체에 따른 미국 사회의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이번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강대국 외교는 차질을 빚게 되었다. 무역분쟁이 심화될수록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패권도전의 의사가 없는 독일, 프랑스, 일본이 미국과의 갈등에서 감당해야 할 비용 대비 효과의 결과보다 권위주의 국가면서 패권도전 의사를 지닌 중국이 감당해야 할 이익 대비 비용이 훨씬 높을 수 있음을 이번 사태는 잘 보여주고 있다. 2050년까지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하려는 중국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 고 일: 2019.02.13.
심사완료일: 2019.02.19.
게 재 일: 2019.02.28.

참고문헌

Bonnie S. Glasser and Evan S. Medeiros. "The Changing Ecology of Foreign Policy Making in China: Then Ascension and Demise of the Theory of 'Peaceful Rise,'" *China Quarterly*, Vol. 190 (June 2007).

John Owen. "Liberalism and Its Alternatives, Agai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20, No. 2, 2018.

Shahar Hameiri and Lee Jones(2018). "China challenges global governance? Chinese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and the AIIB",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3.

Jianwei Wang.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A Paradigm Shif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

Weixing Hu.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The Role of Leadership in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18.

Zhimin Lin. "Xi Jinping's 'Major Country Diplomacy': The Impacts of China's Growing Capacity" *Journal of Comtemporary China*, 2018.

王凡, "中國特色大國外交: 緣起, 成就與發展," 『當代世界』 2017.7.

李志永,袁正清, "大國外交的中國特色之論," 『太平洋學報』, 2015년 2기.

憑維江, "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 『國際展望』, 2018년 3기.

董安,"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戰略方程的政治邏輯,"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7.11.

俞邃, "新時代中國特色大國外交," 『世界社會主義研究』, 2018.3.

李志永, "大國外交的中國特色之論," 『太平洋學報』, 2015.2.

楊潔勉, "新時代中國外交的戰略思維和謀劃" 『外交評論(外交學院學報)』, 2018.2.

王棟 , "淺析中國特色大國外交理論及實踐" 『國際展望』, 2017.11.

劉建飛, "中國特色大國外交的時代特色," 『國際問題研究』, 2017.3.

孔令銅, "負責任的大國風範," 『中國國防報』. 2000.10.

丁寶忠, "中國是個負責任的大國," 新華每日電訊, 2001.3.

屈從文, "負責任的大國觀" 『世界經濟與政治』, 2002.10.

"'和諧世界'理念助推中國外交取得卓越成就," 新聞中心-中國網, 2012년 8월 29일. http://news.

china.com.cn/txt/2012-08/29/content_26362796.htm (검색일: 2018.1.1.).
龐中英, “全球治理的‘新型’最爲重要:新的全球治理如何可能,”『國際安全研究』, 2013年 第1期.
趙可金, “中國地位與世界角色:探索新外交哲學,”『國際政治研究』, 2012年 第4期.
“構建中國特色話語體系, 增強國際影響力話語權” 中國共産黨新聞網, 2015.11.14. https://www.huffingtonpost.com/2014/01/21/xi-jinping-davos_n_4639929.html.
“外媒評中美貿易戰：川普不止對准中國還掃射了全世界.” http://mil.news.sina.com.cn/dgby/2018-06-19/doc-iheauxvz4791600.shtml.
鄭永年, “貿易戰與國際秩序的未來,” 聯合早報, 2018.8.21.
沈丁立, “中美關系進入重大調整期,” 海外網, 2018.5.10.
孫立平, “不解決這四大‘寄生獸’, 中國經濟恢複不了活力,” 資本軍師聯盟. 2018.8.26.
馬雲根, “中國的經濟危機爲何難解,” http://toutiao.manqian.cn/wz_8T7IbJ4vvH.html (검색일: 2018.10.6.)
李若穀, “中美關系已經發生根本變化,”『財經』, 2018.6.22.
袁鵬, “中美關系已發生根本性變化, 雙方正在三條戰線上同時博弈,”『21世紀經濟報道』, 2018.5.2.

Xi Jinping Government’s Major Power Diplomacy and U.S.-China Trade Dispute

by Jeong-Kyung Seo • Dong-Wook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S-China trade disputes on China's major power diplomacy. This study analyzes China’s major power diplomacy as ‘diplomacy as a major power' and 'diplomacy toward major powers’, and argues that the US-China trade dispute affects China’s major power diplomacy of the Xi government.

Keywords: China, Major Power Diplomacy, U.S.-China Trade Dispute, Diplomacy as a Major Power, Diplomacy toward Major Powers